

FOCUS

팬데믹 시티스케이프

줄리안 오피展 10. 7~11. 28 국제갤러리

줄리안 오피의 빛은 어디서 오는가? 화가의 오랜 관심은 빛의 포착이었다. 카라바조는 극적 물입을 유도하는 빛, 모네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순간의 빛, 오지호는 한국 자연의 빛을 담으려 애썼다. 오피의 평면에서 빛은 우리가 일상에서 술하게 마주하는 매끈한 모니터와 액정 화면 뒤에 숨은 인공 메커니즘으로 구현된다. 줄곧 새로운 실험에 열린 태도를 보여왔던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구글 어스를 활용했으며 3D로 구현한 갤러리 공간에 작품을 직접 배치해 보고 섬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피는 팬데믹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동시대의 온라인 시각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벼움의 시대

이번 개인전에서 오피는 도시와 인물을 특유의 간략한 선으로 포착한 작품 30여 점을 갤러리 내외부에 설치했다. 오피가 구체화한 형상은 크게 사람, 동물, 건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전시작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요소는 색채다. 개, 고양이, 소, 수탉, 당나귀 등 동물이 생동감 넘치는 원색으로 표현된 데 비해 도시 속 인간은 저채도의 색상이며 건축물은 흑색과 백색이다. 또한 알루미늄 평면이나 조각, 라이트 박스로 포착된 인물

형상은 하나같이 발이 그려져 있지 않다. 땅에 발을 딛지 않은 깃털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두터운 코트와 점퍼 차림의 사람들은 LED 스크린의 애니메이션 속에서 가방이나 테이크아웃 컵을 든 채 빠르게 걷고 있다. 서로를 그저 스쳐 지나듯 걷고 있는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오직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만을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체"(장 푹 낭시)인 걸까? 오피의 애니메이션에 종종 출현했던, 걷고 가는 팔다리를 우아하게 흔들며 걷는 인물은 없다. 모두 어딘가를 향해 신속하게 걷고 있을 뿐이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있다. 이렇듯 오피는 팬데믹 시대에 더욱 깊어진 고독감을 전달한다. 인물 형상에서 회색조가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 역시 코로나의 여파일지 모른다.

자신의 작업을 '워킹인 페인팅(walk-in painting)'이라고 칭하는 오피는 "내가 하는 일이 회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조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조각 역시 회화처럼 간결한 선 형태를 취하며 거의 평면에 가깝게 납작하다. 벽에 걸린 라이트 박스나 좌대 위 알루미늄 조각의 두께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얇은 조각과 라이트 박스의 이미지는 점차 가벼워지는 물질계와 스크린으로 접속하는 온라인 세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갤러리 2층 공간이 흥미롭다. 도안화된 형태로 라이트 박스에 담겨있던 동물은 어느새 선조 조각으로 좌대에 놓여있다. 이를테면 윤곽선으로만 표현된 사슴 조각 <Deer 3>의 텅 빈 몸을 관통해 벽에 걸린 라이트 박스 속 사슴 <Deer 1>을 바라봄으로써 형상의 반복과 차이를 확인하는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면과 입체의 변주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하는 오피의 작업은 그야말로 질 리포베츠키가 말한 '가벼움의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 아닐까.

미니멀리즘 작가 도널드 저드는 「특수한 오브제」(1965)에서 "작품은 흥미롭지만 하연 된다"라고 썼다. 오피의 작업에서 감상자는 신체적 흔적이 남은 물성에 매료되거나 작가의 호흡이 전해주는 진한 정서적 감동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신 흥미로운 공간 체험과 점점 더 평평해지는 삶에 대한 사유가 존재한다. 전 지구적 전염병으로 고립된 삶에서 납작한 스크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물질과 비물질의 매혹, 현실과 가상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현재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다. 때때로 불안이 엄습할지라도 삶이 지속되는 한 걸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오피의 작품 속 인물들처럼.

/ 김 보라

개인전 전경 2021 국제 갤러리\_줄리안 오피는 단순한 선으로 인물, 건축, 동물 등의 형상을 구현한다. 이번 개인전에는 30여 점의 평면과 조각작품을 출품했다. 전시장에 펼친 도시 풍경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팬데믹 상황을 암시한다. 저채도의 색상이 스펙트럼의 특징.

